



메이저리그 소식

세계태권도선수권 국가대표 결단식

본즈 745호

개인 최다홈런 신기록 -11

미국프로야구 개인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에 도전 중인 배리 본즈(43·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745번째 대포를 쏘아 올리며 이 부문 최고 기록인 헨크 아론의 755개에 10개 차로 다가섰다.

본즈는 9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계속된 뉴욕 메츠와 홈경기에서 0-4로 뒤진 4회 메츠 좌완 선발 톰 글래빈의 초구를 잡아 당겨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그렸다.

시즌 11호 홈런으로 통산 745번째 대포를 신고한 본즈는 아론과 격차를 10개로 줄이며 신기록 달성을 향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본즈는 글래빈을 상대로 통산 4번째 홈런을 맞아냈다. 더욱이 1997년 4월24일 샌프란시스코의 옛 홈구장이었던 캔들스틱 파크에서 애플랜드 소속이던 글래빈으로부터 그라운드 홈런을 때린 뒤 10년 만에 빼앗은 홈런이라 그의 의미가 더욱 컸다.

그는 미국시간으로 8일이었던 이날 생애 처음으로 홈런을 쏘아 올려 정규 시즌 중 홈런을 때리지 못한 날을 이틀로 줄였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러나 초반 열세를 뒤집지 못하고 1-4로 패했다.

서재응·류제국 부진

각각 홈런 1개 허용

미국프로야구 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의 한국인 투수 '듀오' 서재응(30)과 류제국(24)이 나란히 홈런을 맞으며 부진을 거듭했다.

서재응은 9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캠덴야드 오리올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했지만 3이닝 동안 홈런 1개 등 6안타와 2사구, 1탈삼진으로 5실점하고 팀이 1-5로 뒤진 4회 말 팀 코코란으로 교체됐다. 탬파베이는 초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3-8로 서재응은 시즌 3패(1승)째를 안았다.

시즌 평균 자책점은 종전 8.19에서 8.82로 치솟았다. 투구 수는 총 64개에 불과했고 직구 볼 끌어 맞기만 하고 컨트롤도 흔들리면서 조기에 강판됐다.

류제국은 3-6으로 뒤진 8회 다섯 번째 투수로 등판해 기본스에게 1점 홈런을 허용하고 테하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는 등 1이닝을 3안타 1볼넷으로 2실점했다. 시즌 평균 자책점은 4.86으로 나빠졌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종주국 자존심 반드시 지킨다

18일부터 베이징서 개최

광주·전남 출신 남녀 6명

'관리장성 넘어 종주국 자존심 지킨다'

제18회(여자는 제1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이 9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결단식을 갖고 '종합우승 사수'를 다짐했다.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중국 베이징에서 치러질 이번 대회에 한국은 이등 여자 여섯명, 회장을 단장으로 16개 전체급(남녀 8체급씩)에 선수를 파견한다.

이번 대회는 내년 베이징에서 개최될 하계 올림픽의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무대다.

특히 여자부는 최근 무서운 상승세에 개최국 이집까지 안고 있는 중국의 도전이 거세 종합우승을 위협받고 있다.

역대 세계대회 첫 여성 단장인 이등자 단장은 "한국은 그 동안 전(全) 대회 종합우승의 업적으로 종주국의 위상을 쌓아 올려 왔다"면서 "선수들의 맘과 노력이 값진 성과로 열매를 맺어 다시 한번 세계무대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정길 대한태권도협회장으로부터 단장을 전담받은 이 단장은 "남녀 각 5체급 이상의 금메달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남자 페더급 송명섭(한국가스공사)도 "외국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좋아졌다. 결국은 집중력 싸움이다. 1등을 하고 내년 올림픽 무대에도 다시 서고 싶다"고 다짐했다.

지난 3월 새끼손가락을 다쳐 핀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은 송명섭은 이번 세계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동메달, 2005년 세계선수권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어내겠다고 투지를 보였다.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합숙 훈련을 해온 선수단은 15일 오전 중국으로 떠난다.

한편 박경환(56)전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도 여자부 감독으로 선임됐으며 이지영 출신 남자부 왕광연(광주체육고) 코치도 여자부 임종환(효성고등학교) 코치도 선수단을 이끌게 됐다.

또한 18명(남·여 각각 8명)의 선수들 중 남자부 최연호·송명섭, 장창하와 여자부 정진희(조선대 3년), 장은숙, 한진선 등 이지영 출신 6명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18회(여자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이 9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결단식을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하키 4강 진출

9일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솔탄 아즐란사립 국제하키대회 예선 경기에서 한국대표팀과 피카스틴 대표팀 선수가 볼을 다루고 있다. 한국은 이날 4-2로 승리, 4강에 진출했다. /*AFP=연합뉴스

"선수영입 900억 쓰겠다"

맨유, 라이벌 첼시에 대항 거액 지원키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박지성(26)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올 여름 이적시장에서 새 선수 영입에 9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쓸 계획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미러 인터넬판은 9일 프리미어리그에서 4년만에 우승컵을 탈취한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5천만 파운드(약 918억원)를 지원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맨유가 거액을 베푼다는 이유는 라이벌 첼시 때문. 이적시장이 열릴 때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써 온 첼시에 대항하기 위해 퍼거슨 감독에게 든든한 자금을 마련해 준 것이다.

퍼거슨 감독은 최근 다음 시즌 영입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선수 3명을 추려 구단 측에 전달했는데 이와 관련 무성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가장 유력한 영입 후보는 작년 독일월드컵 직후부터 계속 러브콜을 보내 온 중앙 미드필더 오언 하그리브스(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은 하그리브스의 이적료로 2천만 파운드(약 367억원)를 제시하고 있다.

스트라이커의 추가 영입도 이뤄질 전망이다. 후보에는 토트넘 홋스퍼의 불가리아 용병 공격수 디미타르 베르바토프가 가장 유력한 가운데 클라스 안 훈탈라르(아약스), 페르난도 토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도 거론되고 있다.

몸값이 2천700만 파운드(약 496억원) 가장 되는 '카메론의 흑표범' 사뮈엘 에토(바르셀로나)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U-17 청소년축구 우승컵

국내 하나은행서 보관 중

8월 개막되는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8월18~9월9일) 우승 트로피가 조용히 한국 땅을 밟았다.

U-17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9일 "5월17일 예정된 본선 조추첨 행사를 앞두고 FIFA로부터 우승 트로피를 전달 받았다"며 "대한축구협회 후원사인 하나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승 트로피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이미 두 달 전이다.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개최지 점검을 위해 3월3일 FIFA 3차 실사단이 입국하면서 우승 트로피까지 함께 가지고 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점프 성공률 높ی겠다"

김연아 캐나다 전훈 출국

시니어무대 데뷔 첫 해에 세계피겨선수권대회 동메달 패거리를 일궈낸 김연아(17·군포수리고)가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캐나다 장기 전지훈련에 나섰다.

김연아는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머니 박미희씨와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 관계자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236편으로 토론토로 출발했다.

김연아는 출국 전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 허리부상으로 훈련량이 적었던 만큼 이번에는 체력훈련을 위주로 몸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점프의 성공률도 높이고 스피드 스카일 연거에서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Big Opportunity' (작은남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such as '두레박', '마술(매직앤매직)', '엄마손회무침전문점', '서울미용실', '미팜디자인', '초가집숯불구이', '원일건축종합시공업체', '마재카정비센터', '석돈(비엔날레)', '삼모정', '황제김밥', 'GS공인중개사사무소', '정원장어마을', '금성상사타일', '남풍장어마을', and '금강정사'.

Advertisement for 'Kukje Wookshik Sanim (주)' (국제외식산업(주)) featuring wedding services, catering, and banquet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62) 262-2278.